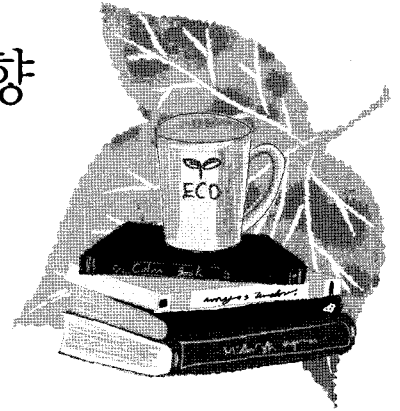


## 기업과 국민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사회환경교육의 역할과 발전방향



###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환경교육부터 실천

지구가 온실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지고 있다. 여기저기 지구가 더워지는 문제로 법석들이다. 길어진 여름과 함께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결국에 많은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벌레들도 보이고, 이 때문에 농작물과 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시대 대응을 위해 환경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생활이며, 녹색생활을 위해서는 생태교육, 녹색생활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생태교육은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수요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공급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녹색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녹색생활입니다. 녹색기술을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녹색생활은 누구라도 오늘 당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중에서 인용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는 이제 구호로서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생태교육에 대한

### 최근 환경교육은

다층화된 교육수요에 대하여 사회적 역할, 공익성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통합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 환경교육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sup>1)</sup>.

최근 다층화된 교육수요에 대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공급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찰중심에서 문제해결지향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과 기업은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잠재력이 충만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생태교육)과 생태관광도 체험형에서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성숙된 상황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바탕이자 자양분을 제공한다. 최근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sup>2)</sup>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체험교육 수요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교육분야도 최근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 풀뿌리단체를 비롯한 지역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해설가(지도자) 양성 활성화,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및 시행,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도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 환경교육 10년 발전계획 수립, 제주도의 환경교육의무화 추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발족, 초록교육연대창립, 환경교육센터 건립 활성화 등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변화는 우리가 환경교육 분야의 부활이라는 조금은 성급한 희망적 낙관론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이다.

최근 환경정책도 사전 예방적·시민 참여적 환경행정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지역과 환경NGO의 비중이 커지고 각 단위별 환경교육·홍보활동 확산, 특히, UN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 이행계획이 선포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이행 평가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함께, 주5일제 근무,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자연체험활동 중심의 여가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Well-being 바람, 생산적인 여가문화, 고령화 사회, 지방분권화, 참여문화와 파트너십 활성화, 체험학습 중요성 확대, 거버넌스 확대, 시민참여형 환경운동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는 환경교육 분야에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환경교육의 사회적 역할, 공익성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환경 현안을 환경교육이 어떻게 실천적인 해결 전략을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생태적 감수성에서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적 지혜로, 유희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통합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 환경교육 역량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문제해결 지향적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문제해결 지향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조직화, 체계화, 세분화가 필요, 즉 학생들과 시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해결 지향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중심의 생산적 환경교육은 환경 안에서(in), 환경에 대하여(about) 배우고 환경을 위한(for) 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즉, 환경을 통해 체험하고 배우는 소극적 참여활동과 학습 중심의 배움 중심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나눔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해결을 위한 실천 목표 지향적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진단과 평가

1) 일반국민의 34%, 초·중·고·대학생의 49%는 향후 강화해야 할 환경교육의 유형으로 “자연체험학습의 기회 확대”를 응답(’09 환경부 국민의식 조사) 2) 2009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교별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09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초·중고 주당 3시간, 고교 4시간)

시스템이 지역, 학교단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과 모델을 발굴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중심의 목표지향적인 생산적 환경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교육 동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층화된 교육수요에 대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공급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면서 지역중심의 차별화된 핵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의 인적 역량 강화<sup>3)</sup>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분야가 나서야 한다.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문제 해결 지향적 접근	지역환경문제 조직화 + 체계화 + 세분화
		문제해결지향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일상적 프로그램 참여
	목표 지향적 접근	지역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과 평가시스템 구축
		지구, 지역적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목표 구체화
		마을, 학교단위의 실천프로그램, 모델 발굴 + 장려

생산적 환경교육의 내용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활동이 기대되는

#### 환경교육진흥법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08년 3월 동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2008년 10월에 제정되었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환경교육진흥위원회<sup>4)</sup>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sup>5)</sup>을 수립해야 하며, 특별·광역시장·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향후 시행을 목표로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추진 방안인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09 개정 교육과정에 본격 도입되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sup>6)</su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의 세부 요소별, 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활동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sup>7)</sup>하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할 예정인데, 학교밖 체험활동의 경우 내용·효과가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에 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 기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교육진흥법에 기초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와 연계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의 도입과 실행에 따라 예상되거나 예견되는 문제의 최소화과 함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혼자할 수 없는 일을 함께

3) 교육의 질은 교사와 지도자에 달려있다. 교육의 성패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와 같은 분야의 역량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며 1.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주관한다.  
5)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축, 2.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사업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교육과학기술부는 '09 개정 교육과정에 본격 도입되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sup>6)</su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의 세부 요소별, 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활동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sup>7)</sup>하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할 예정인데, 학교밖 체험활동의 경우 내용·효과가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에 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 기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교육진흥법에 기초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와 연계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혜를 모아 수행하는 파트너십의 미덕과 운영의 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와 관계없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공동대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의 안정적, 효율적인 정착(연착륙)을 도모하고, 안정적 실행을 유도하는 것도 사회환경교육진영의 책임이며, 환경교육발전과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이해당사자(EE stakeholder)인 공급자, 수요자, 평가자들의 의견(意見)과 이견(異見)을 수렴하여 환경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진영의 공감대 형성, 다양한 의견수렴채널 필요하다. 사회환경교육분야가 지역환경교육계획수립,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프로그램 인증,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과 환경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실행의 연착륙을 위한 소통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시니어(60대)가 주도하는 어린이, 청소년(10대) 대상 숲해설 및 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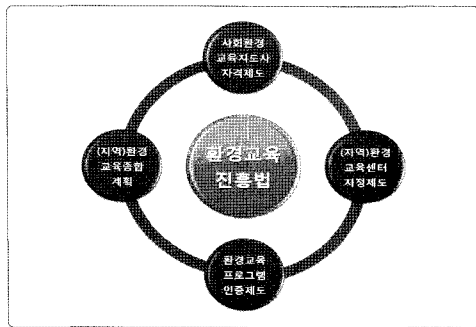
**환경교육의 원천이 되는 학교 - 사회간의 원원 전략**

학교환경교육은 사회환경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교육활동이기 어려우며 사회환경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환경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이 점은 특히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환경교육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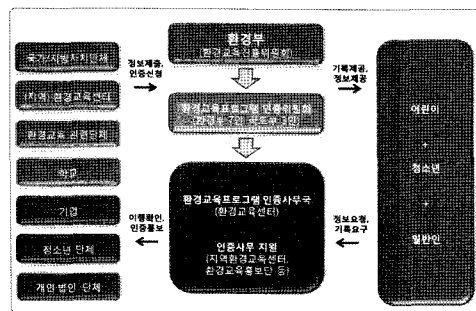
즉, 학교환경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과 상황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현장체험학습 부분을 사회환경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협력함으로써 상승적인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사회의 자원 시설이 학교교육과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연계는 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학교환경교육의 자립성과 자발성, 그리고 문제수행 능력의 배양 및 환경교육 운영 체계 정립 등을 도와주고 보완하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체험 환경교육 활동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지역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역량을 학교환경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환경교육 모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이수 동인인 학습만 아니라, 학교인부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상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주당 3.4시간)는 체험 활동을 실제 하거나, 체험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체험 활동 결과 평가, 분석 등 시간으로 활용 기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활용(10.3 개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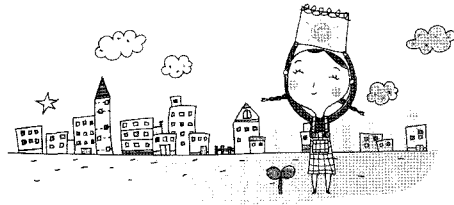


환경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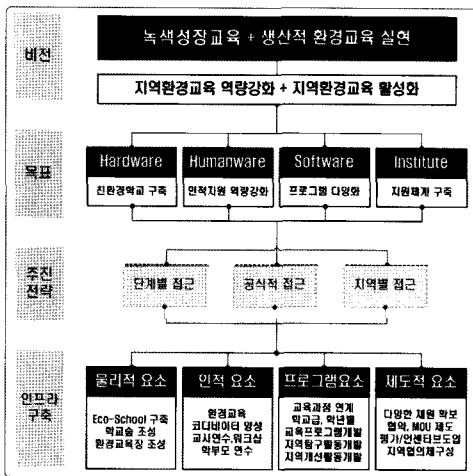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연계와 협력은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부에서도 학교-사회환경교육 양 분야간 연계의 강화추진을 2006~2015년간의 10개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환경부, 2006).



최근 몇몇 단체·기관<sup>8)</sup>들이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환경교육에서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측면에 대한 협력 체제를 연구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의 양 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는 필요성의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환경교육분야는 앞으로 더욱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연계와 협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환경교육분야는 앞으로 더욱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사회환경교육 연계방안

8) 푸른강기대는 2004년부터 학교기획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로 학교-사회환경교육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학교환경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